

# 새로운 조경수 (IX)

- 서어나무 -

조 현 제 (農博) / 임업연구원 산림생태과



꽃과 열매

學名 : *Carpinus laxiflora*  
Blume

英名 : *Laxiflora Hornbeam*

漢名 : 見風乾

日名 : 아카시데 (코시데)

서어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황해도, 강원도 이남 및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며 대개 산골짜기나 산기슭에서 자란다.

나무의 구별을 위한 주요 특징을 보면 줄기의 껍질은 회색 또는 어두운 재색이며 표면은 흰 무늬가 있고 평활하지만 근육모양으로 울퉁불퉁하여 야성미가 높다. 잎은 어긋나며 긴타원형 또는 달걀모양이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모양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며 뾰족하다. 잎가장자리는 겹톱니로 되어 있고 앞면은 털이 없이 진한 풀색인 반면 뒷

면은 연한 풀색으로 엽맥(葉脈) 상에 잔털이 있다.

봄에 나온 새잎과 가지는 붉은 빛을 띄어 마치 꽃과 같이 보여 관상적 가치가 크다. 꽃은 자웅동주(雌雄同株)로 잎보다 먼저 4~5월에 피고 수꽃은 밑으로 처지고 각 포(苞)에 1개씩 달리며 암꽃 역시 아래로 처지며 대가 있고 2개씩 달린다. 열매는 닭알모양의 굳은 열매(堅果)로서 9~10월에 성숙되며 3각상 난형으로 털이 없다. 변종으로는 긴서어나무(var. longispica Uyeki), 왕서어나무(var. macrophylla Nakai) 등이 있으며 근연종으로는 잎에 털이 있는 개서어나무(*C. tschonoskii* Maxim.)가 있다.

나무의 성질은 산지에 보통 생육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높이 15m, 직경 1m에 달한다. 나무의 모양(樹形)은 원정형이고

뿌리는 천근성으로 중용수이지만 대개 양성을 띤다. 적당한 계곡이나 완경사지에서 가장 잘 성장하지만 건조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능선부 및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는 등 광범위한 생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번식은 주로 실생에 의하여 삼목은 곤란하다. 정선종자 1ℓ당 11만립, 1kg당 38만립, 발아율은 25%정도이다. 발아처리는 필요없고 파종은 보통 추파(秋播)로 10월 하순~11월에 하고



줄기와 잎

춘파(春播)는 3월에 하며 파종량은  $m^2$ 당 10cc 또는 3g정도를 흩어 뿌린다. 발아의 대부분은 5월상순에서 중순에 이루어지며 발아시 기대본수는  $m^2$ 당 250본, 득묘수(得苗數)는 150본, 평균 묘고는 35cm정도로서 대개 60cm정도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3~4월에  $m^2$ 당 30본 전후로 상채(床替)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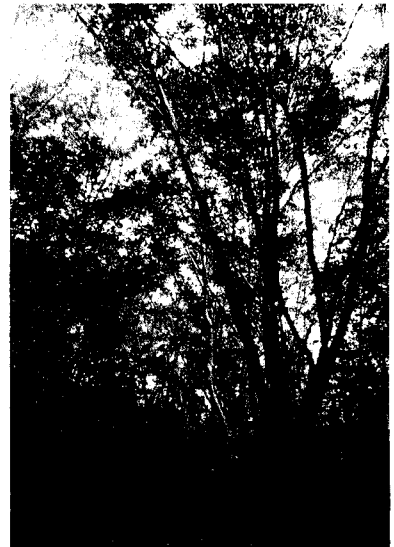
전정시기는 11~2월, 이식적기는 10월 상순에서 11월 하순,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이다.

조경적 개발가치를 보면 봄에 진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새잎은 수풀속에서 하나의 꽃과 같이 아름다우며 흰색무늬가 있는 검은 재색의 줄기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어 정원수, 공원수 및 분재용 수목으로 개발가치가 크다. 특히 공원에 군식을 하면 야성미가 넘치며 느티나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자생지 생육상황



숲내



등산로 주변